

「科學技術稅」 신설키로

國家 科技자문회의의 정책건의

科技특별회계도입 · 기술개발은행설립도

과학기술에 관한 대통령자문 기구인 國家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장 金鎭炫)는 11월1일 科學技術稅 신설, 과학기술特別會計 도입, 기술개발은행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정책 건의사항을 盧泰愚대통령에게 보고했다.

盧泰愚대통령 주재로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열린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金위원장은 2001년까지 향후 10년간 과학기술 부문 투자수요 약 1백54조원중 부족액을 39조원으로 전망하고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金위원장은 이를 위해 정부 예산에서의 과학기술투자비용은 '91년의 3%에서 '96년에 4~5%로, 국방부문 과학기술투자를 국방비의 2.7%('92년)에서 2000년 7%로 확대하고 일반예산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목적세로 科學技術稅를 신설하도록 건의했다.

이 목적세의 세원은 법인세 · 상속세 · 특별소비세 · 주세 · 증권거래세 등에 7%의 부가세를 2001년까지 징수하고 사치성 유흥접객업소 소득에 10%를 부과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자문회의는 과학기술세로 마련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하기 위해 과학기술특별회계제를 도입하고 경제기획원 예산실에 과학기술예산담당관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정부투자기관이 일반기업체보다 낮은 수준의 기술개발 투자를 한다고 지적, 매출액 대

비 일정률을 투자에 배분토록 의무화할 것도 건의했다.

또한 원자력행정의 업무조정 방안 보고에서는 행정체계 개선방안으로 科技處가 안전규제 업무와 연구개발업무를, 動資部가 발전사업을 관장하되 장기적으로는 一元化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10년간 2조원으로 추정되는 연구개발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원자력 각산업체 매출액의 3% 이상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자 건의했다.

정부出捐研 운영 自律化

人事 · 급여 · 指針 등 일률규정폐지

科學技術處는 지난 '81년부터 정부출연 과학기술연구기관들에 일률적으로 적용돼온 人事, 給與, 會計에 관한 11개의 각종 규정 · 준칙 · 지침을 11월1일부로 폐지하여 기관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출연연구소들은 과기처의 직접적인 통제관리에서 벗어나 이사회와 연구소장의 권한과 책임아래 독립적인 규정을 마련,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과기처는 연구소별로 이사회를 통해 새 규정을 확정하도록 하고 그 이전까지는 자체내규를 마련,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에 폐지된 11개 각종 기준은 ▲출연연구기관 인사준칙 ▲특정연구기관 연구원보 인사

관리지침 ▲특정연구기관 급여준칙 ▲특정연구기관 퇴직금급여지급준칙 ▲능력제고 수당지급기준 ▲인센티브 지급기준 ▲특정연구기관 회계준칙 ▲특정연구기관 예산지원 관리에 관한 지침 ▲특정연구기관 국내외여비지침 ▲기본연구사업 관리지침 ▲일반출연연구사업 관리규정 등이다.

이들 규정들은 모든 연구기관들에 대한 획일적 통제로 발전적 운영을 저해하고 정부의 직접적 통제관리로 인해 연구기관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해 왔으나 이번 통제규정 폐지를 계기로 기관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

2001년에 科技投資 GNP 5%로

1조5천5백억 投資... 901개 생산기술 개발

제7차 5개년 科技부문계획 확정

政府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기간('92~'96년)중에 「技術立國」의 실현을 위해 과학기술개발투자를 현재 GNP대비 2.1%에서 '96년 3~4%, 2001년에는 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가 11월12일 최종 확정된 제7차5개년계획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정부와 민간의 투자비율을 '89년의 25:75에서 '96년 30:70으로 전환해 현재 약 10여년 뒤져있는 우리의 과학기술수준을 2000년에는 선진국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투자기관 예산의 일정률을 기술개발에 투자토록 제도적장치를 강구하고 '91~'95년중 정부·민간공동으로 1조5천5백억원을 투자, 경쟁력강화와 직결되는 9백1개의 생산기술과제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개발보유중인 기술중 1~2년내에 기업화가 가능한 1백38개 과제를 민간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정보통신사업에 경쟁제도를 도입하며 소프트웨어산업을 제조업과 같은 차원에서 지원키로 했다.

이외함께 제2차 기계국산화 5개년계획을 수립·추진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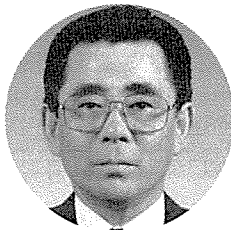
국산화자금을 '91년 3조8천억원에서 '96년 10조원으로 늘리고 지원방식도 현행 최종수요자 금융위주에서 생산단계별 지원 방식으로 전환시킬 방침이다.

動力資源研 분리·발족

資源研소장엔 金東鶴씨
에너지技術研은 吳正茂씨

韓國動力資源연구소가 韓國 에너지연구소와 韓國資源연구소로 분리돼 11월11일 창립이사회를 열고 정식 발족했다.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합동평가결과의 후속조치로 분리된 양기관의 책임자로는 자원연구소소장에 金東鶴박사(56·動資研 자원담당선임부장), 에너지기술연구소장에 吳正茂박사(48·前 動資研소장)가 각각 선임됐다.



〈金東鶴 소장〉

새로 분리·설립된 韓國資源연구소는 지질·자원연구센터와 광물소재 분석센터를 두고 지질 광상 자원탐사 석유자원

을 포함해 해저자원, 광물자원 및 소재의 개발과 분석연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吳正茂 소장〉

또한 韓國에너지기술연구소는 에너지절약연구센터와 대체에너지연구센터를 두고 산업에너지 및 연소기술 건물에너지 대체발전 태양열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환경연구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機械연구원으로 개편

機械研, 海事研은 없애기로

韓國 機械연구소가 韓國 機械研究院으로 변경됐다.

昌原에 본소를 두고 大德에 海事研과 항공우주研 등 2개의 부설기관을 갖고 있던 기계研의 기능재정립방안에 따르면 본소를 大德으로 옮기고 海事研을 없애기로 했다.

그 대신 선박기술연구센터를 두고 그밑에 선박성능연구부, 조선기술연구부를 두어 선박연구전용시설 활용과 선박용품공인시험 업무중심의 기능을 수행하게 한다는 것이다.

본소에는 기계시스템·구조·유체 등 3개연구부를 두며 昌原에는 부설 기계재료연구소를 설치하고 항공우주研은 그대로 두게 된다.

南北간 科技교류방안 모색

科總, 심포지움 열고 연구결과 발표



韓國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11월14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北韓의 과학기술과 南北交流」를 주제로 한 심포지움을 閔寬植 명예회장, 金東一 상임고문 등 관계인사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北韓의 과학기술정책을 비롯한 과학기술전반에 관한 실상과 자료를 종합적으로 조사·연구, 다가올 통일에 대비하고 남북간의 교류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번 심포지움에선 북한외의 기초과학, 생태계, 대기, 환경, 농수산, 해양, 의·약학, 산업기술, 과학기술정책 등 7개분야의 조사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분야별 발표내용과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기초과학분야: 북한의 기초과학의 현황분석 = 金始中(고

려대 이과대교수) ▲생태계: 북

한의 생물상과 자연생태의 조사연구에 대한 현황분석 = 李仁圭(서울대 자연대교수) ▲대기·환경: 한반도 대기질의 오늘과 내일 = 盧在植(한국환경과학연구협의회장) ▲농수산·해양: 북한의 농림축수산분야의 조사연구에 관한 현황분석 = 吳鳳國(서울대 명예교수) ▲의·약학: 북한의 보건의료제도와 의학수준 = 文玉綸(서울대 보건대학원교수) · 북한의 약학현황분석 = 李相燮(서울대 약대교수) ▲산업기술: 북한의 산업기술에 대한 기초연구 = 白瑩鉉(고려대 공대교수) ▲과학기술정책: 북한의 과학기술정책과 남북교류전망 = 鄭助英(科總 회장직무대행) <발표내용은 본문참조>

내년도 事業계획 · 예산 통과

科總 '91년도 제2차 이사회

韓國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11월27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회의실에서 1991년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내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鄭助英 회장직무대행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사업의 기본방향을 ▲과학기술정책개발 및 건의 ▲학회·학술활동 지원과 전문성추진 ▲과학기술정보교류 및 국제협력 ▲과학기술품토조성 ▲남북민간과학기술교류추진 ▲과학기술인의 권익신장 및 자립기반

구축등에 두고 ▲과학기술정책 조사연구사업 ▲학회·학술활동 기초연구 지원사업 ▲과학기술정보교류, 국제협력사업 ▲과학기술품토조성사업 ▲남북민간과학기술협력사업 ▲회원단체 협력사업 ▲별도사업(원로과학기술자문단운영, 과학기술전문도서실운영, <가칭>과학기술진흥센터건립추진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현 21세기위원회 위원장이며 前과기처장관인 李寬박사를 고문으로 추대키로 결의했다.

제3회 韓國科學賞 시상

朴英雨 (물리) · 陳政一 (화학) · 鄭鎭河 (생명) 씨

大賞수상자 없어 장려상만 수상

국내 기초과학진흥을 위해 과학기술처와 한국과학재단이 지난 '87년부터 격년제로 선정, 시상하는 韓國科學賞 제3회 시상식이 11월20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金鎭炫과기처장관, 權原基과학재단사무총장 등 관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최고상인 연구대상 수상자가 없는 가운데 물리분야에 朴英雨교수(39·서울대 물리학과), 화학분야에 陳政一교수(49·고려대 화학과), 생명과학분야에 鄭鎭河교수(40·서울대 분자생물학과 교수)가 연구장려상(연2천만원씩 3년간 연구비지급)을 각각 수상했다.

한국과학상의 대상(상금 5천만원)은 세계정상수준의 연구성과를 낸 과학자에게 수여되며 연구장려상은 세계최첨단연구수준에 도달가능성이 높은 연구자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대상은 1명, 연구장려상은 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등 분야별 1명씩 4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물리분야 수상자인 朴英雨교수의 수상논문은 「전도성 고분자의 전기적 특성연구」로 현재까지 알려진 전도성고분자 가운데 가장 전기전도도가 높은

고분자를 발견한 공로가 인정



〈朴英雨교수〉



〈陳政一교수〉



〈鄭鎭河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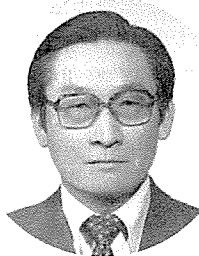
됐다.

화학분야의 陳政一교수의 수상논문은 「폴리에스테르의 미시적인 화학구조의 변화가 액

막힌 「대장균 세포내의 ATP-의존성 단백질 가수분해효소 Ti에 관한 연구」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生物産業協 발족

초대회장에 趙完圭씨



〈趙完圭초대회장〉

생물산업의 발전과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韓國生物産業協會가 11월4일 全經聯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 출범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초대회

장에 趙完圭 前서울대총장, 초대이사장에 許永燮농식품자사장을 각각 선출하고 23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선임한뒤 정관과 사업계획 및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생물산업협회는 앞으로 생물산업의 발전을 위해 업계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알선, 해외기술개발의 동향파악, 생물산업관련 국제협력 강화 등의 사업을 벌이게 된다.

한편 생물산업협회는 농심, 대한제당 등 식품 15개사, 화학 9개사, 섬유 4개사, 제약 15개사, 연구기관 3곳 등 모두 57개사를 회원사로 설립됐다.

『과학 + 예술展』 성황리에 열려

작품판매, 과학기자재 성금으로 기탁

과학기술인과 예술인의 한마당잔치인 「과학 + 예술」행사가 11월5일부터 8일까지 한국종합전시장 별관에서 열렸다.

한편 科振은 이번 행사의 수익금은 전액 科振과 KBS, 中央日報社가 함께 벌이고 있는 초·중등학교 과학기자재 보내기운



◇ 첫날 개막식에 참석한 과학기술·예술인들이 작품을 둘러보고 있다.

과학과 예술의 조화를 통하여 과학문화 창달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과 한국예술단체총연합회 공동주최로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金鎮炫과기처장관, 李御寧문화부장관, 姜善泳예총회장, 鄭助英과총회장 직무대행등 과학기술인·예술인 4백여명이 참석, 축하공연을 가진데 이어 과학기술인의 작품 1백17점과 예술인 작품 32점 등 모두 1백49점에 대한 바자회도 개최했다.

과학기술인의 작품은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15점을 비롯 KIST 과학재단 과기처 등에서 1백12점과 서울시 교육위, 전농국고, 내발산국고에서 5점을 찬조출품했다.

동에 출품자 명의로 기탁할 계획이다.

작년에 이어 2연패

韓國, 독일 發明展서

우리나라가 지난해에 이어 '91 獨逸 국제 發明展'에서 2연패했다.

10월30일부터 11월3일까지 獨逸 뉘른베르크 무역센터에서 열린 「'91 독일 국제 아이디어 발명신제품 전시회」에 우리나라는 23점의 발명품을 출품, 이중 10점의 발명품이 금상 3, 은상 3, 동상 4등 10개의 메달을 수상, 종합성적 1위를 차지했다.

독일·미국·일본 등 19개국에서 3백8점을 출품한 이번 전

사회에서 우리나라는 「합성수지 성형물의 가방장식고리와 걸착끈의 걸착장치」를 출품한 金淳太씨(아이디어산업대표)와 「어학용 카세트의 문장자동선택반복장치」를 출품한 尹滿熙씨(서부산업대표), 피타고라스 정리의 3차원적 교습구」를 출품한 申錫均씨(한국발명연구소장) 등 3명이 금상을 수상했다.

대통령상에 尹滿熙씨

전국우수발명품展

'91 全國우수발명품 전시회에 서 최고 영예의 대통령상은 「어학용 카세트의 문장자동선택반복장치」를 출품한 尹滿熙씨(47, 서부산업대표)가 차지했다.

발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발명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특허청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이 전시회의 국무총리상은 「자동차 클러치용 진공배력장치를 출품한 朴勝一씨(51, 발명가)가, 특별상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사무총장상은 「스테인리스강철의 착색방법을 개발, 출품한 安雲善씨(61, 발명가)가 각각 차지했다.

이들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한국발명특허협회 주관으로 11월1일 KOEX별관 발명장려관에서 金泰俊특허청장, 金生基발명특허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한편 이번에 수상한 우수발명품에 대해서는 사업자금지원, 시작품제작지원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주전산기Ⅱ「타이컴」개발

電子通信研—4개업체 共同으로

순수 우리기술로 개발된 슈퍼미니급 컴퓨터인 행정전산망용 주전산기Ⅱ(일명 타이컴)의 개발보고회가 11월8일 大德연구단지내 韓國전자통신연구소에서 鄭元植국무총리, 宋彦鍾체신부장관 등 관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첫선을 보인 주전기Ⅱ는 '87년 6월부터 한국전자통신연구소와 金星社, 大宇通信, 三星電子, 現代電子 등이 공동개발, 2백15억원의 연구비와 7백14명의 연구인력이 투입돼 개발된 중형컴퓨터이다.

이 타이컴은 중앙처리장치(CPU) 보드등의 설계와 제작에서부터 최종 시스템개발까지 순수한 국내기술로 만든 다중처리방식의 컴퓨터로 높은 확장성과 유연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리속도도 주전산기Ⅰ의 20배에 이르는 80MIPS(1MIPS는 초당 1백만명령어를 처리하는 속도)까지 높일 수 있다.

이 주전산기Ⅱ는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유닉스 운영체제를 기본으로해 고성능의 데이터베이스 관리기능, 한글처리기능, 다른 기종과의 접속을 위한 통신기능, 온라인 자료처리기능을 이용한 운용관리기능을 갖추고 있다.

타이컴은 개발에 참여한 4개

업체에서 올해안으로 商用化해 내년 3월부터 생산 보급할 계획인데 연간 1천5백억원에 이르는 국내 중형 컴퓨터시장에서 수입대체효과는 물론 모두 3백억달러규모의 세계시장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서는 전자통신연구소 吳吉祿 선임연구원에게 국민훈장 목련장이 수여되는 등 모두 40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장이 수여됐다.

고분자 抗癌劑개발

毒性적고 効能탁월

기존의 항암제보다 毒性이 적고 항암효과가 3배나 뛰어난

光州科技院 설립위한 자문·추진委 구성

科學技術處는 光州科學技術院의 설립을 본격화하기 위한 설립자문위원회(위원장 金鎭炫 과기처장관)와 추진위원회(위원장 朴晟容금호그룹회장)를 구성했다.

오는 '9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중인 光州과학기술원은 먼저 碩·博士과정(정원 5백84명)을 개설하기 위해 최근 부지 매입비 4백10억원을 확보하고 내년부터 27억원을 들여 설계 및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科技處장관이 위원장인 설립

고분자항암제가 국내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釜山大 高분자공학과 趙元濟·河昌植교수와 高神大 기초의학 교실, 李能周교수팀은 5년여의 연구끝에 「말레인산系 ETA 공중합체」라는 고분자항암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팀은 기존 항암제 사용시 나타나는 독성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연구를 계속해 오다 말레인산系의 특정고분자 물질이 항암효과가 크고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수차례의 반복 실험끝에 「말레인산系 ETA 공중합체」라는 고분자 항암제를 개발해 냈다.

연구팀은 이 항암제로 동물 실험을 한 결과 생존기간이 기존의 5-Fu를 투약한 쥐보다 3배에서 10배이상 더 연장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자문위원회는 光州과학기술원의 설립규모, 설치학과, 학생·교수수 시설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교과과정개발 학사일정, 설립 추진일정 등에 대해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실무작업반을 운영할 방침이다.

朴晟容금호그룹회장이 위원장인 추진위원회는 대학원의 우월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설립작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관장하게 된다.

「창공91」 시험비행에 성공

37억들여 우리기술로 만든 첫 航空機

순수한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최초의 국산항공기인 「創空 '91」이 11월25일 오전 11시 30분 釜山 金海공항에서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창공'91호는 과거 國策연구과제로 大韓航空, 韓國화이바, 三善工業 등 3社가 지난 '88년 항공우주연구조합을 결성, 개발에 착수하여 총37억원의 연구개발비를 들여 개발 및 최종제품화에 성공한 다목적 경항공기로 설계에서부터 제작까지 모두 우리 기술진에 의해 제작됐다.

5인승 단발피스톤항공기인 창공'91호는 동체길이 7.7m, 폭 10.2m, 무게 7백80kg으로 조종사 1명, 승객 3명, 45kg의 어린이 또는 화물을 탑재할 수 있다.

이 비행기는 최고비행속도 시속 2백42km, 항속거리 1천5백km로 서울에서 中國 北京이나 日本 東京을 논스톱 비행할 수 있고 서울~濟州간을 5시간내에 왕복할 수 있다.

창공91은 조종사 훈련·정찰·공중취재·레저등 다방면에 활용될 수 있으며 동급 외제경비행기가 대당 3억~4억원인데 비해 1억원대로 공급이 가능, 국제경쟁력도 갖추고 있다.

대한항공은 내년에 교통부의 형식승인과 비행을 해도 좋다

는 감항증명을 획득하게 되면 양산체제로 들어갈 예정이다.

아크릴계 충격보강제

럭키서 개발에 성공

럭키(대표 崔根善)는 최근 PVC 등과 상용성이 우수하며 기계적 강도가 뛰어난 아크릴계 충격보강제를 개발했다.

럭키중앙연구소와 여천 ABS 공정팀이 공동으로 지난 '87년부터 총 10억원의 개발비를 투입, 개발에 성공한 이 충격보강제 IM-805는 적은 양을 첨가해

도 충분한 내충격성을 유지할 수 있다.

또 옥외에서 장기간 방치시 노화에 의한 색의 변화, 수지표면의 균열발생과 광택저하 및 충격강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했다.

이 제품은 이 같은 재질의 특성으로 플라스틱창틀, 광고용패널, 옥외용가구 및 파이프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美國, 日本 등지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다.

이번에 럭키가 국산화에 성공함으로써 올해 40억원, 내년에 1백억원 규모의 수입대체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첨단 神經網칩 국내개발

韓國通信, 초당 10억개 演算능력

초당 10억번의 演算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최첨단수준의 神經網칩이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됐다.

韓國通信 연구개발단 기초기술개발팀(팀장 韓一松박사)은 「스스로 학습하고 생각하는 기계」로 불리는 제6세대컴퓨터의 핵심기술로 평가되는 신경망칩을 국내기술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칩은 6개의 트랜지스터로 구성된 단위연결고리 6백40개를 집적한 것으로 1초에 10억개의 연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다.

특히 이 제품은 기존 디지털 방식과 애널로그방식을 조합한 하이브리드방식을 적용, 애널로그의 고집적화와 고속성을 유지하면서 디지털의 범용성과 정밀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 신경망칩은 차세대컴퓨터는 물론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이는 무인차량이나 주방에서 주부의 일을 대신해 주는 로봇 등 각종 전자·기계제품과 통신분야등에 폭넓게 응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自動차량 추적장치」등 시상
IR 蔣英實賞 11월수상제품

기업 및 연구소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기술개발연구원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 每日經濟신문사와 韓國산업기술진흥협회가 공동으로 주관, 시상하는 「IR52 蔣英實賞」 11월 수상제품으로 第一合纖의 易結晶化 폴리에스터수지(제품명 에스론페트)<제44주>, 三星電子의 자동차량추적장치(AVM)<제45주>, 韓國유리공업의 마블라이트<제46주>, 게코전자의 NTC서미스터<제47주> 등 4개제품이 수상했다.

각 수상제품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제44주 = 易結晶化 폴리에스터수지(제품명 에스론페트, 제일합섬): 선진외국제품에 비해 耐熱性이 뛰어나고 미세한 부분까지 成形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이 제품은 기술적으로 손색이 없고 경제성이 없어 '95년까지 전량 수입 대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45주 = 자동차량 추적장치(AVM)<삼성전자>: 차량추적을 위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주요 구성품으로 사용되는 이 장치를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 실용화하는데 성공했다. 삼성이 개발한 AVM의 핵심기술은 스프레드 스펙트럼 기술과 디지털변조방식에 관한 기술인데 이 제품의 개발성공으로 국내에서 개발중인 디지

탈방식의 카본개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제46주 = 마블라이트<韓國유리공업>: 호텔, 백화점, 빌딩 등 대형건물의 벽과 기둥에 부착하는 고급 건축자재인 마블라이트가 개발됨에 따라 원료확보에 한계가 있는 자연석과 수입에 의존해온 인조대리석을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제47주 = NTC 서미스터<게코전자>: 高價원료인 코발트산화물, 구리산화물 대신 철과 티타늄산화물 아연산화물을 이용해 제조원가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해물질인 구리산화물의 사용을 줄이거나 사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섭씨 영하 35도부터 섭씨 1백25도까지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필요한 저항대에 맞춰 40개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소량 다품종 생산이 가능하다.

저항식 습도센서 開發

표준과학연·정풍물산

습도의 측정과 조절을 쉽게 할 수 있는 습도센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됐다.

전자부품 전문업체인 정풍물산(주) 중앙연구소 연구진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습도연구팀(팀장 池大成실장)의 지원을 받아 2년여의 연구끝에 최근 고분

자재료의 저항식 습도센서를 개발, 양산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발된 습도센서는 고순도 알루미늄기판위에 빗살모양의 전극을 증착시키고 그 위에 다시 물과 반응을 잘하는 고분자와 그렇지 않은 고분자를 결합시켜 합성된 감습물질과 분자를 통과시킬 수 있는 고분자 보호막을 차례로 입혀서 제조됐다.

이 센서는 실내용센서로 공기조화장치를 비롯 가습기, 각종 계측기등의 감습부로 폭넓게 활용된다.

이번 센서의 국내 양산으로 인해 그동안 해마다 수입해온 5~6억원어치에 달하는 1백만 개 이상의 습도센서 수입대체 효과를 올리게 됐다.

어린이과학교육관

三星電子, 大邱에 개설

三星電子(대표 姜普求)는 최근 어린이 전자과학 교육공간 마련사업의 일환으로 大邱어린이회관내에 1백20평 규모의 어린이과학교육관을 개설했다.

서울·淸州에 이어 세번째로 마련된 어린이과학관 「휴먼테크 플라자」는 도형인식컴퓨터 첨단반도체 가사자동화시스템 등을 설치, 전자분야의 현재와 미래를 실물과 설명문안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 크로마키시스템 겐보이등 전자 오락물도 구비, 어린이들의 건전한 놀이공간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토록 되어 있다.



한국작물학회

韓國作物學會(회장 李弘祐)는 지난 10월5일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에서 91년도 추계학술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연구발표회에서는 초청강연으로 구니 이시하라교수(일본 노고대학)의 「벼재배 고수학의 생리적 특성」과 趙東三교수(충북대)의 「水稻의 乾物生産과 배분에 대한 數理的 연구」 등 2편과, 일반연구발표로 재해분과에서 金七龍박사(영남 작물시험장) 외 1명의 「동해안 지대 稻作의 冷潮風 피해와 경감대책」 등 6편을 비롯 생리·재배분과에서 崔鳳鎬교수(충남대) 외 4명의 「옥수수 수의 한열성에 미치는 온도의 영향」 등 12편과 육종·품질분과에서 崔海樞박사(작물시험장)외5인의 「米質의 품종 및 환경변이 분석」 등 6편이 각각 발표되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大韓神經精神醫學會는 지난 10월11일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강당에서 91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

다.

이날 총회에서는 신입회장에 郭東日교수(고려대), 부회장에 閔聖吉교수(연세대)·趙容南박사(고려신경정신과)를 선출했다.

한편 학술대회에서는 高京鳳교수(연세대)의 「정신신체장애와 인지행동치료」 등 11편의 특강을 비롯 재단연구과제로 禹鍾仁교수(서울대)의 「정신분열병 환자에서 Haloperidol 투여에 따른 치료반응과 혈장 Homovanillic Acid 농도 및 혈장 Haloperidol과 Reduced Haloperidol 농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등 4편과 구연발표로 金明正교수(부산대) 외 2명의 「생쥐의 강제수영으로 인한 통각둔화현상에 미치는 P-Chlorophenylalanine과 Naloxone의 효과」 등 42편의 논문이 각각 발표되었다.

대한약리학회

大韓藥理學會는 지난 10월18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제43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신입회장에 白永鴻교수(전남대), 부회장에 金景煥교수(연세대)를 각각 선임했는데 이들의 임기는 1년이다. 또한 학회 사무실도 연세대의대 약리학교실(Tel: 361~5210)으로 옮겼다.

한편 학술대회에서는 특별연제로 孫英淑교수(서울대)의 「표

피세포의 분열과 분화의 조절 ; TGF β_s 및 TGF α 」 등 2편과 일반구연연제로 白永鴻교수(전남대) 외 2명의 「흰쥐 흉부대동맥 표본에서 자외선조사에 의한 내피세포의존성 수축반응에 대한 연구」 등 33편 그리고 포스타발표연제로 鄭明熙부교수(서울대) 외 4명의 「8-Hydroxyguan ine DNA Glycosylase 활성의 증명과 이 효소의 기질특이성에 관한 연구」 등 43편이 각각 발표되었다.

대한방사선방어학회

大韓放射線防禦學會(회장 林瑒圭)는 지난 11월1일 서울 라마다르네상스호텔에서 제15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새 회장단이 구성되었는데 회장에 林瑒圭부원장(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부회장에 李炳憲교수(한양대)와 朴贊一교수(서울대) 등 5명이 각각 선출되어 2년간의 임기에 들어갔다.

한편 학술대회에서는 尹錫哲박사(한국 원자력연구소) 외 1명의 「Alpha-track Detection 방법에 의한 극소 라돈자핵중(P_{α} -218)의 방사능 입자크기분포도 측정」을 비롯 金建中박사(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 외 2명의 「입출력 선형 이론에 의한 라돈 환경계통의 최적매개변수 모델링」 등 11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대한내과학회

大韓內科學會(회장 金敎命)는 지난 10월18~19일 양일간 서울 워커히호텔에서 제43차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새회장단이 선출되었는데 회장에 金敎命 교수(한림대)와 부회장에 金東集 교수(가톨릭의대), 鄭俊摸 교수(경북대)로 임기는 1년이다.

한편 학술대회에서는 일반연재발표로 沈贊燮교수(순천향의대) 외 8명의 「24시간 보행성 식도운동 및 pH검사법의 임상적 의의」를 비롯 李賢雨교수(영남대) 외 4명의 「내시경적 경화술에 의한 식도 적맥류의 활동성 출혈의 지혈효과」 등 294편과 심포지움에서 慶淵浩교수(이화여대)의 「성선호르몬 분비호르몬(LHRH)과 그 아날로그의 임상적 이용」 등 37편 그리고 판넬토의로 李弘撥교수(서울대)의 「당뇨병에서의 항산화제 필요성」 등 14편이 각각 발표되었다.

한국화학공학회

韓國化學工學會(회장 崔根善)는 지난 10월25일 대전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원에서 91년도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수석부회장으로 있던 李漢州교수(연세대)

를 회장으로, 張弘圭사장(대림산업(주))을 수석부회장으로, 李華榮교수(서울대)와 孟元起사장(제삼섬유(주))을 부회장으로 각각 선임했는데 임기는 1년이다.

한편 학술행사에서는 초청강연으로 李東勳장장(공업진흥청)의 「정책당국자로서 현시국에서 본 화학공업계 및 학계에 바라는 것」 등 2편과 특강으로 宋德萬조교수(울산대)의 「위생매립지에서의 악취완충거리를 결정하기 위한 악취모델링 방법론」 등 9편 그리고 일반발표로 崔靑松교수(서강대) 외 2명의 「요소포집 화합물 결정화를 이용한 달맞이 종자유로부터 GLA의 분리정제」 등 총 222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대한기생충학회

大韓寄生蟲學會(회장 閔得映)는 지난 10월25일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91년도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새회장단으로 회장에 閔得映교수(한양대)와 부회장에 宋壽復교수(부산대)를 선출했는데 임기는 2년이다. 또한 閔회장은 학술상을 수상했다.

한편 학술대회에서는 특별강연으로 곤도교수(일본, 가나자와대학)의 「개, 고양이 회충증 혈청학적 진단 및 역학적 배경」과 일반발표로 林敬一교수(연세대) 외 1명의 「한국에 있어서

의 위 Anisakis II. 분리한 Anisakis (Nematoda, Anisakidae) 유충의 형태학적 특성 및 분류학적 고찰」을 비롯 趙昇烈교수(중앙대) 외 1명의 「유구낭미충의 혈청학적 진단을 위한 Avidin-biotin complex ELISA Protein A ELISA 유동성」 등 총66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한국원자력산업회의

韓國原子力産業會議(회장 安秉華)는 지난 10월29~30일 양일간 세라톤워커히호텔에서 제13회 한일원자력산업세미나를 일본원자력산업회의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보다 나은 원자력발전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초강연으로 韓榮成실장(과기처 원자력실)의 「한국에 있어서 원자력계의 최근 현황과 전망」과 白石晶一부사장(일본, 九州電力(주))의 「일본에 있어서 최근 에너지정세와 원자력개발」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또한 일반발표로 金正洙부소장(한국전력공사 고리원자력본부 제1발전소)의 「고리원전 1·2호기 불시정지 현황 및 감소대책」을 비롯 松谷和彦부장(일본, 關西電力(주) 원자력건설부)의 「원자력발전소 정지율 감소를 위한 대책과 실적 및 개선방향」 등 1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이어 각 주제발표에 관한 총괄토론이 이어졌다.

과학기술계뉴스

대한방사선의학회

大韓放射線醫學會(회장 崔基鐵)는 지난 10월25~26일 양일간 잠실롯데월드 호텔에서 제 47차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신임회장에 崔基鐵교수(전북대)가 취임했으며 차기회장으로 金春烈교수(가톨릭의대)가 선임되었다. 또한 전시상으로 금상에 任廷基부교수(서울대), 은상에 姜興植교수(서울대) 등 2명, 동상에 金昌根교수(원광대) 등 3명이 각각 수상했다.

한편 학술대회에서는 특강으로 리차드 웨브교수(미국, 캘리포니아대학)의 「폐실질의 고해상력 전산화 단층촬영진단」 등 2편과 일반연재발표로 金鍾壽교수(전북대)의 「금성 담낭염에서 담낭누공성형술의 치료적 효과」 등 162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또한 「폐암의 방사선학적 진단」이란 주제로 열린 심포지움에서는 任廷基부교수(서울대)의 「CT를 이용한 폐암의 병기판정」 등 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한국천문학회

韓國天文學會(회장 朴弘緒)는 지난 10월17~18일 양일간 한국교원대학교에서 91년도 추계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발표회에서는 초청

강연으로 金正律교수(교원대)의 「지구의 역사와 천문학」을 비롯 玄正峻교수(서울대)의 「역설(paradox)과 발견(discovery)」 그리고 연구발표로 李時雨교수(서울대) 외 1명의 「Field RR Lyrae 변광성의 공간분포와 중원소 함량분포」와 朴弘緒교수(교원대) 외 1명의 「AR Lac 광도곡선의 이차광도변화에 관한 측광학적 연구」 등 8편이 각각 발표되었다.

대한조선학회

大韓造船學會(회장 金士洙)는 지난 11월15~16일 양일간 대전에 있는 해사기술연구소에서 91년도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새회장단으로 회장에 李貞默교수(포항공대)와 부회장에 李在旭교수(인하대), 張皙소장(해사기술연구소)을 각각 선출하고 학회 포상규정에 따라 기술상(朴容喆 한국선급 상무)과 총무기술상(金外鉉 현대중공업 실장)을 수여했다.

한편 학술행사에서는 특별강연으로 崔寬植회장(조선공업협회)의 「조선기술 개발을 위한 산학연 협조체제에 대하여」와 洪性完교수(인하대)의 「조선기술 국제화에 관한 제언」 등 2편과 일반학술발표로 李在旭교수(인하대) 외 1명의 「대변위 및 대회전을 고려한 셀 요소의 비선형해석」을 비롯 金辰安교수

(부산대) 외 1명의 「저속시 전-후진 추종운동에 있어서 선체 유체력의 수학모델」 등 59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대한금속학회

大韓金屬學會(회장 金淵植)는 지난 10월26~27일 양일간 고려대학교 과학도서관에서 91년도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강연 및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새회장으로 金壽植교수(인하대)와 부회장으로 白德鉉소장(산업과학기술연구소), 羅亨用교수(서울대), 趙顯麒교수(경북대), 崔鍾述교수(연세대) 등을 각각 선임했다. 새회장단의 임기는 1년으로 내년 1월부터이다. 또한 총회에서는 금속상에 金鶴起씨(삼화화성(주)) 등 각 학회상이 시상됐다.

한편 학술행사에서는 초청발표로 柳根傑박사(산업기술연구소)의 「반도체 재료의 특성 및 응용」을 비롯 12편과 기념강연으로 金宗濤사장((주)대양실업)의 「알루미늄의 표면처리」 등 4편이 발표됐다.

일반강연으로는 楊天鈞박사(중국, 북경과학기술대학)의 「高爐에서의 새로운 기술 발전 현황」 등 9편 그리고 일반학술 발표로 金道薰교수(연세대) 외 1명의 「금속 표면거칠기 및 응용에 따른 CO₂ 레이저빔의 흡수를 측정에 관한 연구」 등 241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과학기술계뉴스

대한생화학학회

大韓生化學會(회장 李熙星)는 지난 10월25~26일 경희대학교에서 91년도 정기총회 및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새 회장단이 구성되었는데 회장에 李熙星교수(중앙대)와 차기회장에 吳相煥교수(연세대) 그리고 부회장에 白汝基교수(원광대)로 임기는 1년이다.

한편 정기학술대회에서는 초청강연으로 白雲基박사(미국, 템플대학)의 「단백질 메틸레이션: 검열」 등 7편과 일반연제로 李起榮교수(전남대) 외 3명의 「Carbachol 치료에 의한 PC12 세포의 활성화」 등 49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한국박용기관학회

韓國舶用機關學會(회장 李東奎)는 지난 10월25~26일 양일간 해군사관학교에서 91년도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91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9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심의했으며 학회 논문상을 朴錫柱부교수(한국해양대)에게 수여했다.

한편 학술강연회에서는 특별강연으로 이와모토 소이치교수(일본, 사이타마대학)의 「디젤기관 축계의 점성비틀림 진동댐퍼에 관한 설계계산법」과 학

술강연으로 崔在星교수(한국해양대) 외 2명의 「과급기용 래디얼 가스터빈의 성능 특성에 관한 연구」를 비롯 梁注鎬교수(부산수산대) 외 3명의 「DC Servo motor의 최단시간 위치제어」 등 12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해군사관학교를 돌아보는 추계견학회가 있었다.

한국폐기물학회

韓國廢棄物學會(회장 梁承澤)는 지난 11월9일 충북대학교에서 91년도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새 회장단을 선출했는데 회장에 金秀生교수(동아대)와 부회장에 金炳彩부사장(진도엔지니어링), 都甲守교수(숭실대)로 임기는 2년이다. 또한 총회에서 兪毅老박사((주)한농)에게 공로상이 수여됐다.

한편 학술발표회에서는 특별강연으로 金炳彩부사장(진도엔지니어링)의 「산업용 폐기물의 유동층 소각법」 등 2편과 일반학술발표로 李光鎬교수(충북대) 외 1명의 「도시지역 주택용 호기성 정화조에 관한 연구」와 金俊炯박사(한국원자력연구소) 외 4명의 「고온배기체 여과용 탄화규소 여과매체의 특성과 제조」 등 11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또한 동학회는 학회사무실을 12월중으로 강남구 역삼동 662-15 재원빌딩 501호(Tel: 563-5-933)로 옮길 예정이다.

한국비파괴검사학회

韓國非破壞檢査學會(회장 李楷)는 지난 11월15일 라마다르네상스호텔에서 제1회 극동지역비파괴검사 학술대회(FENDT '91) 및 기기전시회와 제1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일본, 대만, 한국 등 3개국이 참가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廉永夏교수(서울대)의 「종의 기원」에 관한 특별강연을 비롯 테루오 기스히교수(일본, 동경대학)의 「SiC/SiC 복합재료의 음향방출분석」과 S.W. 쉐교수(대만, 국립대만대학)의 「용접부위에 대한 방사선투과검사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李承錫박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고온에서의 EMAT 탐촉자의 제조」 등 51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또한 총회에서는 91년도 사업결산보고 및 92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의하고 한국전력공사 金吉助 前이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기기전시회에는 경도양행을 비롯 4개의 기업체가 참가했다.

한편 동학회는 11월5~7일 3일간 반도유스호스텔에서 「ASNT(미국 비파괴검사학회) LEVEL III」 시험을 실시하였다.

비파괴검사분야 종사자들에게 국제 자격증을 취득할 기회가 된 이번 시험에는 미국 비파괴검사학회에서 파견된 감독관(토마스 문슨)의 주관하에 총 61명이 응시했으며, 결과는 내년 발표된다.

과총회원단체 12월중 학술행사 일정

단체명	대표자	행사명	일시	장소
고려인삼학회	한병훈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12. 5	서울대 교수회관
한국농업기계학회	고학균	농축산물 생산·가공의 시설화 및 자동화에 관한 세미나	12. 6	서울대호암교수회관
한국경영과학회	곽수일	추계학술대회	12. 6-7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동물분류학회	노분조	"	12. 7	한국교원대학
대한간호학회	홍여신	제21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12.12	서울대병원

한국원자력학회

韓國原子力學會(회장 尹容九)는 지난 11월12일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현안문제로 부각되어 있는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학회의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원자력학회의 입장」이란 제목의 이 성명서에서는 원자력발전의 필요불가결함과 방사성폐기물처리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협조를 강조하고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현재는 물론 앞으로로도 전원의 다원화, 에너지안보, 깨끗한 환경, 경제성 및 첨단기술 개발 이용을 고려해서 원자력발전은 필요불가결한 선택이다.

□ 원자력이용에 따른 부산물인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는 그 혜택을 입고 있는 우리가 맡아야 하는 만큼 이것을 안전하게 처분하고 관리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처분장이 시급히 건설되

어야 한다.

□ 원자력을 이용하고 있는 스웨덴,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원자력발전기술과 함께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선정, 건설 및 운영에 관련되는 주요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부지선정과 그 시설의 건설 및 운영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공개적으로 시행하며, 관련 주민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방사성폐기물관리 등 원자력에 관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찬반 논의를 할 수 있는 토론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선정에 관련된 조사연구에는 산·학·연의 학자 및 연구자들이 효과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가 요망된다.

□ 원자력계 과학기술자는 원자력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공

급하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며, 국민보건과 국가경제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학술연구와 기술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大韓齒科醫師協會(회장 尹興烈)는 지난 11월1~2일 대한생명63빌딩에서 협회창립70주년 기념 제40회종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다음 세대에 물려줄 우리의 유산」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종합학술대회에서는 특별강연으로 文赫秀교수(서울대)의 「치과의사와 건강」을 비롯 질렌박사(FDI(세계치과의사협회)사무총장)의 「성공적인 치과개원」 등 10편이 발표되었다.

또한 심포지움에서는 朴尙進교수(경희대)의 「심미충전」을 비롯 27편 그리고 일반연제발표에서는 趙成岩교수(경북대)의 「브레네마크 임프란트가 좋은 이유」 등 17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과학기술계뉴스

한국산업미생물학회

韓國産業微生物學會(회장 鄭址旻)는 지난 10월26일 연세대학교 100주년기념관에서 제38차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92년 새 회장단으로 회장에 洪淳德교수(경북대)와 부회장에 康順善교수(제주대), 李炯煥교수(건국대), 林盛基사장(한미약(주))을 선출했는데 임기는 1년이다.

한편 학술발표대회는 미생물 자원 개발연구의 최신동향에 관한 심포지움으로 열렸는데 朴茂榮박사(한국과학기술원)의 「영원한 먹이를 찾아서」를 비롯 成洛燾교수(경상대)의 「섬유소 분해 효소생성 미생물의 분리 및 육종」 등 20여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한국요업학회

韓國窯業學會(회장 張性道)는 지난 10월31일~11월1일 양일간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91년도 추계총회 및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새 회장단으로 회장에 李應相교수(한양대)와 부회장에 金宗熙교수(한국과학기술원), 朴順子교수(서울대), 黃浩淵대표(월간 세라믹스)가 각각 선출되었는데 임기는 2년이다.

한편 연구발표회에서는 특별

강연으로 朴懂洙박사(한국기계연구소)의 1명의 「 Si_3N_4 의 마모 특성에 관한 연구」 등 12편과 일반연구발표로 尹冀鉉교수(연세대)의 1명의 「복합 페롭스카이트 $Ba(Mg_{1.3}Ta_{2.3})O_3$ 계의 마이크로파 유전특성」 등 197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한국생물공학학회

韓國生物工學會(회장 金在亨)는 지난 11월2일 부산대학교에서 91년도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제3대 회장으로서 崔次鏞교수(서울대)를 선출했는데 임기는 2년이다.

한편 학술발표회에서는 특강으로 許泰鍊교수(인하대)의 「스위스의 치즈제조 공정과 현황」 등 3편과 일반발표로 金均盤씨(동국대)의 4명의 「유기용매 추출법과 산 가수분해에 의한 포플라의 전처리 및 효소당화액을 이용한 생물고분자의 생산」 등 4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한국해양공학학회

韓國海洋工學會(회장 辛玟教)는 지난 11월30일 대전에 위치한 해사기술연구소에서 91년도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92년도 새 회장단으로 회장에 韓健模교수

(동아대)와 부회장에 李楷박사(한국기계연구소), 崔秉權부회장(한라중공업(주)), 吳世奎교수(부산대)를 선출했는데 임기는 2년이다.

한편 학술대회에서는 특별강연으로 友田好文교수(일본, 東海대학)의 「해상중력계의 개발과 서태평양에서의 중력측정, 결과의 해석」과 일반연계발표로 尹楨邦교수(KAIST)의 3명의 「유체 저장구조물의 지진해석 -파력발전기의 흡수 파력 추정-」을 비롯 徐昌敏교수(경북대)의 1명의 「복수표면 균열의 피로균열성장해석에 관한 시뮬레이션」 등 20편이 발표됐다.

한국태양에너지학회

韓國太陽에너지學會(회장 朴元勳)는 지난 11월9일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에서 91년도 추계태양에너지학술발표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새 회장단이 구성되었는데 회장에 吳正茂소장(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과 부회장에 朴伊東교수(성균관대), 李環會교수(연세대), 宋鉉甲교수(충북대)로 임기는 2년이다.

한편 학술발표회에서는 특별강연으로 로버트 뱀박사(네바다주립대)의 「태양열 응용에 있어서의 진보적 개념」을 비롯 일반발표로 宋鉉甲교수(충북대)의 1명의 「PCM의 잠열량 감소 제어 기법...」 등 1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